

김용민브리핑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공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지난 주 화요일 박근혜는 3차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해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고는 "국회가 결정한 일정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잖은 외신은 박근혜가 사퇴 선언을 했다고 타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탄핵을 각오하겠다"며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은 국회 재적 의원 2/3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국회 결의입니다. 그럼에도 거역한다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운운했던 말은 거짓이 됩니다. 결국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탄핵 참여를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뿐 아닙니다. 지난달 8일 국회에 와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박근혜가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박근혜의 퇴진을 전제로 한 비상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퇴진 또는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을 수 없다고 논의를 차단했습니다. 결국 총리 추천 카드는 야당 내부의 분란을 야기해 박근혜 2선 퇴진 요구를 묵살하려는 간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운영을 마비시켜놓고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했던 짓이 고작 꼼수 궁리 정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머리 만질 생각이나 했으니 그의 집권기,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최근 촛불집회에 어린이를 대동하고 나오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 어른들,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가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까. 그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체제가 230만 촛불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면 자신의 조국이 정의롭지 않은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를 인증해주는 셈인데요. 후손을 위해 결연한 의지로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으로 바르게 세웁시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7일(수) 1부 | 취임 후 마약 지속적으로 청와대 반입 확인

[오프닝] 국회 결정 따르겠다더니 "탄핵해도 묵살하겠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청와대, 박 대통령 취임 후 마약류 8종 지속 구매 처방

-'백옥주사 거짓말'...청와대 이틀째 묵묵부답

-서창석도 "효과 없다"는 태반주사...靑 물레 사용?

-김기춘, 세월호 동조단식에 "비난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

-야당 "친박 초재선들 넘어와... 탄핵 가능성 넘었다"

-태안 기름유출 어민 배상금 40% 대형로펌이 가졌다

[뉴스듣기능력평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 관련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트럼프와 대만 총통의 전화통화에 중국 정부는 화났다

-"해킹 가능성 낮아" 호연장담했던 군...기밀자료 유출돼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아쉬움, 본색, 그리고 성과·재벌 청문회 세 가지 지점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 나타나면..."은 이재용의 진면모

[공화국 논평] 김진태에 대한 강도 높은 증대 조치

약물 게이트

news1 박 취임 후 마약류 8종 구매·처방

청와대가 대통령 박근혜의 재임기간에 총 8개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해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게 대략 3100정이었는데요. 이중 2500여정을 사용했다. 남들은 죽을 때까지 한 알도 안 먹었을 약이다. 8개 약제, 보니까 수면유도 약품이거나 의료용 마약이다.

국민일보 ‘백옥주사 처방’, 靑 연일 침묵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백옥·태반·감초 주사를 처방한 사실을 인정했지? 각종 주사제들이 “직원들 건강관리용”이라고 했던 당초 공식 해명은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언론과의 유일한 공식 소통 창구인 대변인 오전 브리핑을 그제와 어제, 이틀째 취소했다.

서울신문 태반주사, 靑 주치의 몰래 사용?

대통령 박근혜의 전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과거 태반주사가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의 태반주사 처방에 대해 모른다고 함구하고 있다. 주치의가 쓸모없다고 주장한 태반주사를 박근혜가 몰래 사용했다는 의미겠지?

곳곳에 최순실의 그림자

한겨레 차 전담 미용사, 최순실 자매 소개

대통령 박근혜가 세월호 침몰 당시 90분 동안 머리 손질을 했다는 보도, 한겨레와 SBS가 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하기 전 다시 한 번 머리손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박근혜의 전담 미용사는 최순실·최순덕의 20년 단골이었다. 강남의 유명 미용사인 정 모 씨는 2005년부터 박근혜의 서울 삼성동 사저를 드나들며 머리를 손봤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었다고 한다.

한겨레 청담고 교사 7명, ‘수뢰’ 혐의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등학교 교장과 담임교사 등 7명을 ‘수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수뢰란 뇌물 먹었다는 말이다. 정유라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교육청은 본 것이다. 교육청은 이들이 정유라의 입학과정과 출결상황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성적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친박의 난파선 탈출

경향신문 ‘탄핵 표결’ 친박 대부분도 참여

대통령 박근혜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보다 탄핵 표결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모레 금요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친박계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한편 비박계는 비주류에서 누가 찬성할 것인지 이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東亞日報 “친박도 넘어와...탄핵 무난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가능선인 2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친박계 초·재선이 탄핵 찬성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친박만 “10명 정도”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

특검이 밝혀야 할 것들

한겨레 김기춘, 세월호에 “비난 가해지게”

한겨레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입수했다. 2014년 8월 23일 메모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자와 함께 ‘자살방조죄.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 지도’라는 메모가 나온다. 그날은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4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문재인 의원이 동조 단식을 벌이던 중이었다. 사흘 뒤 조선일보와 일부 언론은 문재인 의원을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또한 김영오씨의 가족사와 노조활동 전력을 거론하며 단식 의도를 의심하는 보도들도 이어졌다. 김기춘의 꼭두각시였다.

경향신문 재벌들 하나같이 “대가성 없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총수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낸 거액의 출연금에 대해 하나같이 “대가성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총수들도 뇌물제공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뇌물죄 규명은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의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보도, 뇌물죄 시인하면 박근혜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뇌물 받은 쪽이니까.

朝鮮日報 “대통령 뜻이니 물러나라고 해”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 손경식 CJ그룹 회장, 어제 이런 증언을 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 박근혜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이다. 그러나 손경식 회장은 박근혜가 퇴진을 요구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 추갑니다.

경향신문 “하늘 무너져도 정의 세워야”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박근혜의 형사처벌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수남 총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축제의 장

한국일보 ‘만남의 광장’ 된 광화문

춥붙집회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광화문이 ‘만남의 광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일 광화문광장은 동창회부터 부부동반 모임까지 각양각색의 송년회 장소였다. 덩달아 광화문 주변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집회 전후로 수많은 모임이 이뤄져 행진 코스인 청운·안국동 상점들의 매출이 2,3배 크게 증가했다고.

“일본에 뺏겨서 고개 들고 살아야 한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느냐.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인물이 되고 튼튼한 나라 만들어라. 다른 나라에 고개 숙이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고 박숙이 할머니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박근혜 퇴진과 전봉준투쟁단 후원을 위한
공개방송! "닭개장쇼"
12월 9일은 닭 잡는 날
#문지당이 닭개장 쏘니당^^
2016. 12. 9(금) 11:30~ 여의도 문화마당

영터리 역사교과서

한국일보 이승만도 '1948년 건국' 불인정

국정 역사교과서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하고 있다. 그해에 건국이 됐다는 거지.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승만 정부조차 당시 정부 수립을 불안정하다고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주대 이수걸 역사교육과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1948년 세워진 이승만 정부는 건국일을 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통일이 이뤄져야 온전한 국가라는 인식에 기반 했다." 아울러 당시 관보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부속 약정'으로 어민 속인 대형로펌

경향신문 태안 기름유출 배상금 40% 쟁거

9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어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배상금의 40%가량을 대형 법무법인이 수입료로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기름유출 피해로 받게 되는 배상금의 7%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하고 한 대형로펌과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로펌은 7%의 성공보수 이외에도 어민들에게 지급될 배상금에 법원이 책정한 '자연이자'를 양도받아 챙겼다. 이 로펌이 지금까지 어민들을 대신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간 배상금만 199억 원에 이른다. 어민들은 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또다시 힘겨운 소송에 들어갔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마리 앙투아네트"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고명섭 한겨레 논설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이다. "프랑스대혁명은 1793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파리 민중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이 정치적 포르노그래피였다.

포르노그래피는 왕실의 너저분한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전하면서 그 안에 혁명적 주장을 담았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포르노그래피의 단골 주인공이었다.

사치와 향락에 젖은 왕비는 민중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범죄와 방탕으로 오염된" 왕비의 삶이 고발되고 회자됐다는 점이다.

포르노그래피를 통해 민중은 왕실 사람들을 신성한 존재에서 보통 사람으로, 마지막에는 자신들보다 못한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왕은 돼지가 됐고 왕비는 원숭이가 됐다. 이 나라 대통령도 같은 운명을 겪고 있다. 비아그라·유사미약·백옥주사가 등장하는 비린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과 페이스북에 떠돈다. 이 단어들과 함께 온갖 포르노그래피적 상상력이 번져 나간다. 대통령이 정치적 목숨을 연장하려고 계속 구질구질한 꼼수를 쓴다면, 대중의 분노는 대통령의 인격에서 최후의 위신까지 벗겨내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즉각 퇴진!

12.7.(수) 전국 동시다발 대회

수도권 15:00 여의도 산업은행 앞 대회 이후 산업은행 → KBS → 새누리당 행진
 세종충남 17:00 새누리당 박찬우국회의원 사무실 앞 '새누리당 규탄대회'
 17:00 박근혜퇴진 아산 촛불집회
 대전 19:00 새누리당 대전시당사 앞 '새누리당 규탄집회'
 제천,단양 13:00 새누리당 권석창의원 사무실 앞
 음성,진천,충평 16:00 새누리당 경대수의원 사무실 앞
 충주 12:00 새누리당 이종배의원 사무실 앞
 청주 16:00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실 앞
 보은,옥천,영동,괴산 16:00 새누리당 박덕홍의원 사무실 앞
 전북 12/6~12/8 18:30 새누리당 정운천의원 사무실 앞 규탄 촛불집회
 광주 17:00 새누리당 광주전남시도당사 앞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17:30 새누리당 광주전남시도당사 앞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
 전남 18:00 새누리당 이정현 사무실 앞 '전남 촛불대회'
 대구경북 14:30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 '박근혜퇴진! 새누리당 해체!
 단협시정명령 분쇄! 노동부 규탄 대구경북결의대회' 집회후 노동청까지 행진
 부산 15:00 새누리당 이현승의원 사무실 앞 '철도파업승리 새누리당 규탄대회'
 울산 14:00 새누리당 울산시당사 박근혜퇴진, 새누리당 해체 기자회견
 18:30 롯데백화점앞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경남 오전 박근혜퇴진 새누리당 해체 기자회견
 18:30 새누리당 경남도당 '박근혜퇴진 새누리당 해체' 촛불집회
 춘천 11:00 새누리당 강원도당 앞 기자회견
 원주 11:00 새누리당 김기선의의원 사무소 앞 기자회견
 강릉 14:00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사무소 앞 결의대회
 동해 11:00 새누리당 이철규의원 사무소 앞 기자회견
 속초 18:30 새누리당 이양수의원사무소 앞 촛불 중앙시장 집결 후 행진
 제주 16:00 새누리당 제주시당사 앞 '새누리당 규탄집회'

